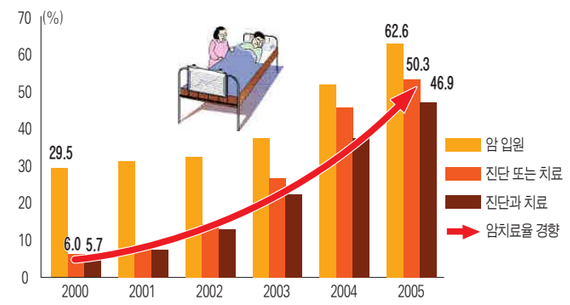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전남대병원 암 진료 5년새 10배 늘어

■ 암환자 및 치료율 현황



전남대병원을 찾는 광주·전남 지역 암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최근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05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암환자 7천602명 중 3천569명이 광주 전남대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 46.9%의 담당률을 기록했다.

5년 전 신규 암환자 6천218명 중 357명이 두 병원에서 암 진단·치료를 받아 담당률 5.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수 또한 2000년 1천836명에서 2005년 4천7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남대병원의 암치료능력과 시설이 향상되면서 내원환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대병원 측은 암센터 개원으로 검사장비의 질이 향상되고 조기검진이 확대되면서 조기 암진단비율이 꾸준히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로 주민들의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자체 '금연클리닉팀'이 매주 수요일 2시~5시까지 클리닉에 직접 오기 힘든 직장인, 노인 등을 방문해 금연상담과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다.

상담사와 간호사 등 6명으로 이뤄진 클리닉팀은 8주 과정으로 관내 사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을 차례로 방문, 금연상담을 진행한다. 또 흡연자들의 명단을 등록해 지속적으로 금연활동을 관리하며 클리닉 참여자들의 건강진단을 해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 등으로 금연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연안과 눈사랑 봉사단 태안 주민들 무료 검진

이연안과병원(대표원장 임선택) '눈사랑 봉사단'은 지난 20일 태안군 소원면에서 방제활동과 함께 의료봉사를 펼쳤다.〈사진〉

병원 의사와 간호사 및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자원봉사의 손길이 뜸한 파도리 지역에서 눈 따가움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무료 검진과 의약품을 제공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감기겠지" 방치했다 건강 해치는 질병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온다', '두통과 열이 있고 온몸이 쑤신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기나 몸살인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증세다. 하지만 이런 증세가 계속된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한다. 이런 질병들을 감기로 오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조선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한 교수의 도움말로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들을 알아보고 예방 및 치료법을 설명한다.

콧물에 재채기 비염
기침 한달 지속 천식
고열에 숨차면 폐렴

콧물과 기침 등 감기 증세가 지속된다면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의사를 찾아 정확한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이준한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기관지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조선대병원 제공〉

병·의원 찾아 정확한 진단… 큰 병 사전 예방을

◇맑은 콧물에 재채기 - 알레르기 비염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 질환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다. 재채기와 코막힘, 기침 등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 또 염증이 생기면 몸살감기처럼 열이 나고 근육 통증을 느끼기도 해 헷갈리기 쉽다.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론 갑작스런 재채기와 맑은 콧물을 들 수 있다.

또 눈이 붓고 가려우며 충혈이 잦다는 것도 감기와 다른 점이다. 초기에 나오는 맑은 콧물은 2차 감염이 오면 누렇게 변한다. 일주일이면 호전되는 감기에 비해 감기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예민한 코 점막이 콧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에 과민하게 반응, 일어나는 증상이다. 우선 원인물질(항원)을 밝혀내고, 이를 피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요법이다. 코막힘이 심하면 비대해진 하비갑개를 절제하는 수술과 레이저, 코블레이터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끈끈하고 누런 콧물과 안면부 통증 -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콧물 감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안에 낫는다. 감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열흘 이상 이어지고 누런 콧물과 코 가래가 목으로 넘어가 기침이 나온다면 '만성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크다. 아침에 눈곱이 많이 끼거나 안면부의 압통, 눈 뒤쪽의 통증이 동반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장 흔한 발병 원인 중 하나가 감기다. 따라서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감기를 조심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점막내의 진균에 의한 염증도 부비동염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먼지나 공해물질이 많은 곳은 피하고 겨울철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한다. 초기 약물 치료 후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있다.

◇계속되는 기침과 이물감 - 천식

기침이 한 달가량 지속된다면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감기로 인한 기침은 열이나 콧물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되고 일주일이면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나 다른 호흡기질환일 경우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나고, 목에 가래가 붙어있는 느낌과 함께 숨이 가쁜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침만 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과정에서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급성발작이나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약을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천식은 유전적인 영향과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꽃가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이 나고 숨이 가쁘다 - 폐렴

기침과 가래에 오한까지 들면 몸살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38.3도 이상의 고열과 가슴부위 통증, 숨까지 찬다면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한다. 먼저 호흡이 빨라졌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정상인은 1분에 평균 12~20회 가량 숨을 쉬지만 25회 이상으로 빨라지고, 손톱·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예방법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며 과음, 흡연, 과로 등을 피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지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만성심·폐·간질환, 알코올 중독, 당뇨, 혈액투석 등의 질환자는 사망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 치료에는 항생제가 쓰이며, 늑막염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사용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도움말=이준한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고혈압·당뇨병·심장병… 대부분 성인병 '대물림'?

가족을 보면 내 병 보인다

생활 습관등 가족 공유로 특정 질환 집중 발생

유전질환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유난히 많이 앓는 질환이 있다. 한 가족에게 특정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족력 질환'이라고 한다. 생활습관병이라 일컬어지는 성인병들이 대부분 가족력 질환에 속한다. 우리 가족이 잘 걸리는 질환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다면 예방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유전성 질환과는 달라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본다. 가족력은 혈연간 공유한 일부 유전자의 영향과 더불어 비슷한 직업, 사고방식, 생활습관과 동일한 식사, 주거환경 등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습관은 '후천적 유전자'로 볼 수 있다.

가족력 질환은 생활습관 교정, 조기진단 등으로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병 등은 가족력 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은 특히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위암 등 일부 암도 가족력질환으로 꼽힌다. 가족 중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심장병의 주요 발병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으며 이 요인들과 가족력이 합쳐지면 발병위험은 더욱더 커진다.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자식이 발병할 확률은 15~20%에 이르고, 부모가 모두인 경우는 30~4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고혈압도 부모 모두 정상일 땐 자녀가 고혈압일 확률은 4%에 불과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고혈압이면 30%, 양쪽 모두면 50%까지 올라간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앓고 있는 경우 딸은 발병 가능성이 2~4배가 높아진다.

◇취약질병은 미리 관리해야=가족력 질환은 식생활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도 있고 가족력 질환을 알고 있으면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과식, 과음, 짜게 먹는 습관 등이 가족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혈압을 낮추려면 식습관을 바꾸도록 한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 강하지만 엄격한 식사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의 경우 술, 담배, 인스턴트식품 섭취 등의 습관을 고치고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

직계가족 중 암 환자가 있으면 40대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40~55세 이전에 성인병이나 암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보다 이른 나이에 정기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가족력 질환은 부모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3대까지의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연합뉴스

〈도움말=한림대의료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룸튜창고, 복자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점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융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건	층	감정가	최저가
운암동 일신	24	14층	5000	3500
치평동 리안	24	16층	9000	6300
월계동 벽산	38	14층	15000	10500
동림동 푸른	24	11층	6800	4700
월계동 모아	36	7층	13000	8900
금호동 중앙빌리스	34	14층	13000	9100
두암동 부영	15	11층	2900	2030
송하동 삼익	32	2층	9000	6300
쌍촌동 성우	34	2층	16000	11200
치평동 대주	25	8층	8700	6090
소촌동 대덕	24	6층	4500	3150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농성동	116/67	5억1천	1억8천
두암동	58/128	4억6백	1억4천
화정동	79/204	5억1천	2억8천
중흥동	107/392	10억8백	5억6천
우산동 모텔	100/433	11억1천	4억9천
월계동 모텔	152/427	15억8천	8억8천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용봉동	21/58	21가구	3억9천
	용봉동	21/25	16가구	5억4백
	삼각동	63/107	12가구	2억6천
	담양읍	104/119	12가구	3억6천
	일곡동	91/224	12가구	5억3천
상가주택	동림동	69/125		3억1천
	오치동	77/170		4억8천
	오치동	74/173		3억2천
	오치동	56/95		2억5백
	문흥동	54/97		2억3천
	지산동	483/282		10억
	풍향동	53/198		4억4천
	계림동	121/743		18억3천
	월곡동	136평		4억7천
	매곡동	55평		2억8천
	월곡동	45평		2억1천
	월곡동	60평		3억
	진월동	70평		1억7천
오피스텔	쌍암동	오피스텔 15		4천8백
	동명동	오피스텔 10		3천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6억	3억3천	
2억1천	1억4천	
2억1천	1억3천	
2억1천	1억3천	
2억1백	1억3천	
2억9천		
2억1천		
2억1천		
1억1천		
1억4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4천		
2억1백		
2억1천		
1억6천		
1억5천		
1억4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천		
1억3